

INTERNI

& D e c o r



FEBRUARY, 2022



우수콘텐츠잡지
2021

공간, 미래의 터전이 되다
2022 국내외 주방 가구 경향
2022 욕실 가구 경향

초대하고 싶은 집

My Lifestyle Is Falling into Deep Rest 깊은 안식을 위한 공간

취재 한성옥

깊은 밤을 보낸 뒤 눈부시게 환한 아침이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는 삶에도 적용된다. 빠르게 달려가는 사회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법.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롯한 쉼을 선사할 가구와 소품들을 소개한다.



DIVINE SAVAGES



SELETTI

내 삶을 나답게 만들기 위해 현대인은 자기만의 가치관,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정립하고 이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특히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를 기준으로 취미를 즐기고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며 쇼핑을 하는데 패션, 문화, 심지어 음식까지 라이프스타일로 수렴할 정도다. 집을 진정한 내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요소도 바로 라이프스타일이다. 흔히 집은 나를 가장 잘 투영하는 공간이라 하지만 비슷비슷한 평면의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다 보면 집과 내가 동떨어진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를 재구성하면 집과 나의 관계를 긴밀하고 돈독하게 다질 수 있다. 주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 힘들다면 라이프스타일을 면밀히 반영한 제품으로 공간을 차근차근 채워 보자. 요즘 리빙 업계는 라이프스타일을 다각도로 분석해 소비자의 삶과 가치관을 대변하고 뒷받침해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거실과 주방, 방과 욕실 등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제품, 1인 가구에 특화된 제품, 홈 파티를 위한 제품, 지속가능성을 충족하는 제품 등이 나타나며, 디자인도 특정 라이프스타일의 특징을 고려해 세심하게 매만진다.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은 집을 거주자의 삶을 온전히 품고 지지하는 공간으로 바꿔준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제품이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상징해 소비자가 새로운 삶을 꿈꾸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



domkapa



MENU



Minotti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의 성향과 가치관, 사회의 흐름을 수용하며 시간이 갈수록 다분화한다. 요즘처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한 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시대에는 휴식도 라이프스타일이 된다. 전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은 끝날 줄 모르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연달아 일어나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기까지 하다 보니 평온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위태로운 사회에서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자기 계발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마음챙김이 일상 속 중요한 활동으로 떠오르고 심리치료 챗봇을 사용하거나 명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며 자기만의 안식을 찾는다. 특히 집에서 오로지 휴식만을 위해 영역을 할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을 짚어볼 만하다. 원래 집은 휴식의 공간이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다양한 활동의 무대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집을 즐겁고 다채롭게 해주는 한편 휴식의 기능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에 침대 하나만 둔 침실, 안락의자 하나만 둔 방을 마련해 외부와 단절된 채 쉼에 몰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면으로 고요히 침잠할 수 있도록 어둡고 동굴 같은 공간을 연출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며 검은색, 진녹색, 고동색 등 진한 색을 벽 전체에 끼얹어 기운을 묵직하게 가라앉히고 암막 커튼을 드리워 빛을 최대한 차단하거나 침대 옆에 가림막을 세워 은신처의 느낌을 심화한다. 침대 역시 아늑하게 안긴 기분을 느끼고자 헤드 보드가 침대를 감싸는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고, 주변 습도를 조절해주거나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매트리스를 더해 수면의 질을 높인다. 침대맡에 은은한 빛을 흘리는 조명이나 향초를 피울 수 있는 촛대를 두어 더욱 평온한 밤을 이끌며 잠들기 전 가벼운 다도로 신체 흐름을 가다듬기 위해 차탁과 다기를 갖추기도 한다. 나무, 돌 등 자연스러우면서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고 장식 요소를 걷어내 정갈히 가다듬은 풍경 속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 시작된다.

Color



HOMMÉS STUDIO

천장부터 바닥까지, 바탕부터 소품까지 공간 전체를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채로 감싸 들어서는 순간 숨이 잔잔히 가라앉는 공간을 연출한다. 깊은 밤 그 자체인 듯한 검은색이나 어두운 회색을 입혀 한낮에도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볼드한 컬러를 중채도로 낮춰 풍요로운 감성을 채우기도 하는데 유화 물감처럼 농밀하고 윤기 있는 느낌이 정서적 위안을 선사한다. 소란을 모두 흡수할 듯한 딥 블루, 딥 그린 외에도 진한 파랑과 보라가 섞인 로도나이트 등이 어우러진다. 대지의 조용한 힘을 연상시키는 갈색도 눈에 띈다. 월넛같이 짙은 색 나무에서 따 오거나 초콜릿처럼 감미로운 색, 커피 쿼츠, 다운타운 브라운 등 중후한 색이 목재, 가죽 등의 소재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미한다.

#Black #Gray



(주)한샘



까사미아



DePadova



BONALDO



Fabbian



ACH COLLECTION



Minotti



favius



MENU



Frag



NATUZZI ITALIA

#Deep Green #Deep Blue #Brown



(주)한샘



MENU



domkapa



THE French Bedroom COMPANY



Ethnicraft



baxter



Poliform



LIME LACE



bolzan



Breiz



HOMMÉS STUDIO

Material



MENU

인간이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천연 소재로 공간을 단단하게 받치는데 목직하고 힘 있는 돌과 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그중 색이 짙고 결이 고운 티크나무, 고풍적인 마호가니, 잔잔하면서 투박한 석회나 트래버틴 등이 자주 나타나며, 거친 느낌은 정제해 정적이고 안전한 흐름을 그리되 특유의 질감을 살리고 광택 없이 마감해 자연스러움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촉감을 강조하기도 한다. 리넨, 울, 부클레, 깃털 소재 등으로 온화하고 포근한 감촉을 전하고 부드러운 결과 클래식한 이미지를 모두 갖춘 가죽, 벨벳도 안식에 깊이를 더한다.



THE French Bedroom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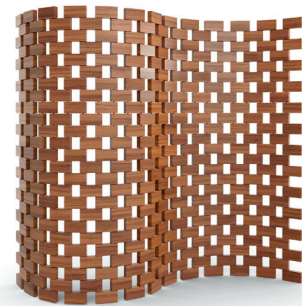
ClassiCon



favius



rochebobois



Cassina



MARIO TSAI



ESSENTIAL HOME



Ethnicr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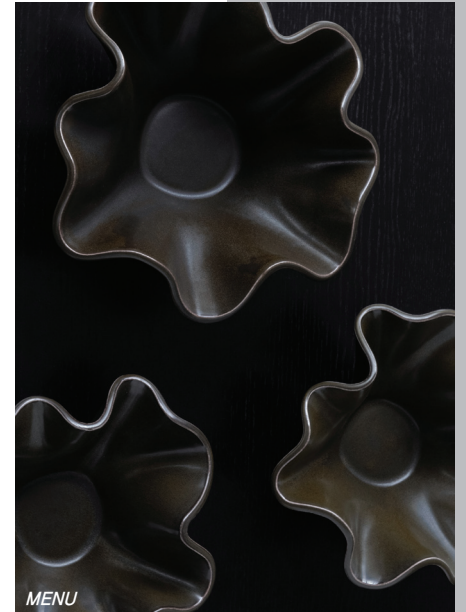
Bretz



Abid Javed



baxter



MENU

날카롭고 반듯한 직선보다는 유순한 곡선으로 공간을 어루만지며 태초의 은신처인 동굴 형태가 선호된다. 편리하지만 때때로 강박감을 주는 문명의 속박에서 달아나 자연 속에서 쉬고 싶은 심리는 인위적 형태를 배제하고 비정형적, 비대칭적, 유기적 형태를 지향하는 흐름으로 발산된다. 특히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형태가 돋보이는데 나무가 자라나며 그리는 선, 꽃잎이 이루는 형태, 땅 위에 나타나는 흙의 결, 파도의 일렁임 등을 가다듬어 공간에 녹여낸다. 곡선은 부드러움을 넘어 풍요롭고 안락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양감을 살리며 구름처럼 동글고 폭신한 모양, 온몸을 꼭 감싸 안아주는 모양 등으로 나아간다. ▣



rochebobois



Design House Stockholm



MENU



101COPENHAGEN



rochebobois



101COPENHAGEN



Fabbian



house doctor



Bloomingville